

Epilogue File



반드시 게임 종료 후 여십시오.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를 포함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해답편: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모든 일이 그녀가 말한대로 흘러갔다. 지금 내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나의 ‘여동생’ 말이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의 연극 같았다. 하필이면 밀실이라는 케케묵은 무대를 선택한 것조차도 너무 연극적이다.

시원은 밀실이 된 욕실에서 죽어있었다. 그 욕실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밀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시원의 사망 시각에 우린 모두 밖에 함께 있었으니까. 혹시 사망 시각이 조작된 건 아닐까 의심해보았지만 그렇게 생각할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다. 독살이라면 어찌어찌 사망 시각을 조작할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인은 감전사였다. 물론 김용희가 반드시 사망 시각을 정직하게 말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어수룩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그는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했다. 재벌이의 담배와 용희의 담배가 고작 브랜드가 같다는 것으로 전날에 먼저 현장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억측이다. 오히려 새 담배를 사면서 라이터는 쟁기지 않았다는 점이 더 논리적으로 의심스럽다. 용희와 시원의 관계로 보았을 때 아마 그 담배는 시원의 것이 아니었을까? 일단 시원이 피우는 담배가 풀뿔이라는 사실은 전날 밤 함께 담배를 피웠던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밀실 살인이라는 것의 진상은 결국 몇 가지로 압축된다. 밀실이 아니었거나, 사망시각 조작, 아니면 장치를 이용한 살인. 장치를 이용한 원격 살인이었다면 그 스위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래도 전기와 관련된 행동을 한 건 나밖에 없었고, 이 방법이 맞다면 시원은 내 손에 죽은 셈이다. 처음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내가 차단기를 올렸을 뿐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두 명 있었다.

“오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움짤 몸이 떨렸다. 상대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녀를 아직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때, 일부러 그런 거였지? 불이 나간 것 같다는 말”

“눈치껏어요?”

저 생글거리는 웃음조차 연극처럼 느껴진다.

“보통은 그 상황에서 전등 스위치를 먼저 찾지, 불이 나갔을 거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리고요?”

“그 문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에게 살인 장치를 누르도록 유도한 사람은 두 명이었다. 하나는 헤민, 하나는 시원. 시원의 문자가 아니었다면, 헤민의 증언거림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상하다. 시원과 헤민의 공모로 시원이 죽은 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한 건 또 하나 있었다. 그 스마트폰. 너무 멀쩡했다. 스마트폰이 물에 떨어진 후에 감전된 거라면, 스마트폰은 타지 않고 시원만 탔을 리 없다. 그러니 감전의 원인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꽂혀있지 않은 충전기에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살해와 관계없이 별도로 물에 집어넣었다. 어째서 그래야 했을까? 아마 그걸 수박에 없었기 때문이겠지.

여기서 밀실의 네 번째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물에 넣은 것은 밀실이 열린 이후고, 이유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원이 죽은 시각에 스마트폰이 욕실 안에 있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서 헤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어야 했다. 시원의 스마트폰이 욕실 안에 있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건 누구지?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건가? 그보다, 그 스마트폰은 그러면 그 전엔 어디에 있었던 거지?

“당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도, 나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시원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그리고 보니 그 스마트폰, 기계식 버튼이 달려 있었지. 요즘은 흔하지도 않은데...”

“제가 선물로 줬거든요. 달고 있으면 꽤 편리해요. 왜, 화상 키보드는 역시 눈으로 보면서 눌러야 하잖아요? 기계식 키보드가 있으면 안 보고도 얼마든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랬군.”

왜인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재미있어서는 아니다. 이 요란한 연극에 멋지게 돌아난 나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서였다. 그 문자가 온 시각에 아마 시원은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암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치고는 얼굴 표정이 너무 멀쩡했다. 마치 자다가 부치불식간에 죽은 것처럼. 게다가 물기가 남은 유리컵, 냉장고의 수면제, 범인은 시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 분명하다. 왜? 고통을 덜어주려고? 아니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요란한 살인을 위해서. 마치 이 산장 자체가 살인 장치나 마찬가지였다. 전기 공사를 위해 받은 견적서. 욕실 내에 배선을 새로 하고, 욕조 근처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목격자들을 모으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시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전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진짜로 시원이 아니었다면?

“줄피뎀은...”

“제가 권했어요. 이래 배도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역시나, 이상한 모든 것들에 최혜민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말이 된다. 시원의 최측근이라는 위치. 슈퍼관리자 권한을 얻을 만큼의 신임을 받는 비서. 갑작스러운 전기공사, 심지어 오늘의 이 모임까지도. 회성의 기억금고가 풀린 것 그리고 그 코드가 헤민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것도. 헤민이 시원의 이름을 빌려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그 살인극을 수행했다. 용희는 약을 내주었고, 회성은 살인 도구, 그리고 나는 그 살인 장치의 실행범. 하지만 최혜민 자신만은 직접적인 살인으로부터 속 빠져나갔다.

“그야말로 차도살인이구만...”

나도 모르게 증언거렸다.

“꽤 힘들었다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헤민은 잠시 신기하다는 듯이 날 쳐다보다가 다시 생글생글 웃기 시작했다.

“오빠랑 나는 정반대의 사람이예요.”

“이 가문에서 이질적인 존재라는 의미라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헤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생글거리는 웃음은 그대로지만 어쩐지 웃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난 애초에 가족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가족을 가졌고 자기 손으로 버린 오빠는 이해 못 하겠죠. 난 그냥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했죠.”

“가족이라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는 혈육보다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헛웃음이 나왔다. 비밀의 공유라니, 이진 공유라기보다 독점 아닌가. 양말이 족쇄에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쪽 족쇄의 끝은 헤민이 잡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은...

“비밀의 관계는 다른 비밀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비밀은 한쪽에 몰아두는 게 안전하죠.”

무슨 뜻이냐고 되물을 생각도 하기 전에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에 찍힌 것은 젊은 남자였고, 뒷면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있었다.

“그 얼굴, 누굴 닮지 않았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생이 있더라고요. 형을 참 사랑했던. 지금 어디 있는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머릿속에 복잡한 감정과 함께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걸 가져온 거야? 나에게 뭘 하라는 거야? 또 똑같은 일을 벌일 생각이야? 수많은 말의 혼돈 속에서 겨우겨우 입에서 끄집어낸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알아낸 거야?”

헤민은 생긋 웃으며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다. 이번엔 정말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 ♪”

후일담: 도약

최혜민은 20살에 어머니의 재혼으로 UH 회장이에 합류했다. 최중산이 재혼한 목적은 새 자식을 얻기 위해서였고, 이 결심은 진원의 가솔과도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중산과 주희 사이에 자식은 생기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계도 소원해졌다. 모녀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었고, 주희는 불안 장애를 겪다가 5년 전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혜민은 이 사건에 크게 충격 받았다.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날아오르든가, 떨어지든가. 이 집안에 남아있는 이상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계기는 진 병원 사건이었다. 김가원의 범행은 유치하고 경솔한 방법이었지만, 명쾌했다. 이찬호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찬호를 죽인다. 김득진이 나를 방해하니, 김득진을 몰락시킨다. 혜민은 밖에서 힘을 기르겠다는 자신의 태도가 결국 도피나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다. 병원을 그만 둔지 얼마 되지 않아, 혜민은 회장과에 밀리고 있는 시원을 찾아갔다. 시원은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머릿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조력자를 자처하는 혜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시원의 신임을 통해 혜민이 얻은 더 큰 성과는 기억금고 시스템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혜민은 이 시스템에 슈퍼 관리자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유용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다.

혜민의 목적은 부회장파라는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회장파의 세력을 이용해 회장파를 이기고, 그 부회장파의 핵심 권력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회장파의 힘이 더 커져야만 했다. 혜민은 부회장의 파벌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맥들을 조사했고, 이들을 끌어들이거나 흡수해서 세력을 키울 방법들을 연구했다. 대부분의 밀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원이었다. 시원은 확실히 최중산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회장파와의 세력 차이를 매꿀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신임은 아니었다. 그저 첫째보다 셋째가 좀 낫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해답을 찾은 것은 2달 전, 이 산장에서였다. 산장 관리인은 자기 이름을 박진이라고 소개했지만 혜민은 그 인상착의가 사진으로 본 둘째 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시원의 묘한 표정이 그 직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의 유일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최시원을 빼고 그 자리에 최진원을 넣는다면, 혜민이 구상한 그 파벌은 확실한 강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밀의 공유야말로, 혈육보다 강한 끈이 될 것이다.

머칠 후, 혜민은 최시원의 명의로 욕실 전기 공사를 지시했다. 시원이 줄피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쯤부터였다. 물론 시원에게 줄피뎀을 권한 것은 혜민이었다. 간호사 출신이었기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인이었다. 유흥전자의 급속 충전기 일부에서 누전과 과전류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미리 입수하고 있었기에, 혜민은 2달 간 여러 개의 샘플을 구입해 테스트했다.

오늘 산장에 도착했을 때, 혜민은 마침 샤워를 하고 나온 시원에게 주스를 권했다. 당연히 주스에는 줄피뎀이 들어있었다. 잠든 시원을 욕조에 넣어 살해 장치를 준비해두고는, 시원의 스마트폰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산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 산장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시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박진에게는 누전 차단기가 고장난 것 같다는 문자를, 그리고 오늘 모임 멤버들에게는 예약 문자를 걸어두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해두고 스마트폰을 핸드백 속에 집어넣었다. 물론 손이 쉽게 닿을 만한 곳에.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는 7시가 되기 전에 산장입구로 돌아갔다. 줄피뎀의 약효는 길지 않다. 2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박진이 차단기를 올린 순간, 시원의 숨은 끊어졌다. 잠시 기다린 후 혜민은 핸드백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의 단축번호를 눌렀다. 시체가 발견되고 소동이 일어났을 무렵, 사람들의 눈이 충전기 쪽으로 쏠린 사이에 혜민은 슬쩍 스마트폰을 물속에 빠뜨렸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혜민은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날아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